

###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 공유 전동킥보드 처벌강화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안 -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민채 의원

최근 우리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어디든 위태롭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요. 올해 들어 전동킥보드의 이용 건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쓰임새가 여가를 즐기는 '레저용'에서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즉,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눈에 띄게 급증하고,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더욱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교통사고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86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더 완화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규제 방법, 단속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심지어는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12월부터 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도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지만, 기존과 달리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해당

조례안을 인지하였다는 동의를 금액결제 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용자에게 법률적인 경각심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칭)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12월, 막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안이 아닌 안심을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